Gaihōzu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 미 스탠퍼드 대학 소장 지도를 중심으로 -

Describe Dockdo in The Gaihōzu Map

- Analysis on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 collection of Stanford University -

文 相 明 (Moon, Sangmyeoung)*

◁ 목 차 ▷

1. 서 론
2. 메이지 시기 Gaihōzu지도에 대한 연구
 2.1 한국 학자의 메이지 시기 Gaihōzu지도에 대한 연구
 2.2 스탠퍼드 대학의 Gaihōzu지도 심포지엄
3. 세계 2차 대전 이후 Gaihōzu지도의 배치와 소장
 3.1 Gaihōzu지도 소장 처
 3.2 Stanford University Earth Sciences Library 소장 Gaihōzu지도
4. Gaihōzu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4.1 East Asia 1:1,000,00 <경성>
 4.2 East Asia 1:500,000 <울릉도>
 4.3 East Asia, Southeast Asia, Alaska 1:2,000,000 <대동아항공도>
 4.4 Far East 1:2,000,000 <항법용경위도도>
 4.5 South Korea 1:50,000 <울릉도>
5. 맺음말
<참고문헌>

<초 록>

일본은 비밀 정찰 활동을 통해 187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를 Gaihōzu 지도라고 부른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Gaihōzu 지도를 압수하였고, AMS(Army Map Service)는 이 지도를 다시 인쇄하여 미국과 캐나다 대학 및 공공 도서관 150여 곳에 기증하였다.

스탠퍼드 대학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는 82세트 8,000여 점에 이르는 Gaihōzu 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 지도는 1903년, 1927년, 1938년, 1944년에 제작된 지도이다. 1903년에 제작된 지도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 및 주권을 박탈해가기 전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군이 압수한 원본지도와 미군이 지도를 압수하여 도쿄에서 다시 인쇄한 지도이다.

Gaihōzu 지도는 첩보활동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형도이며 정치적 인식이 담긴 지도가 아니다. Gaihōzu 지도에서도 독도의 실체는 달라진 적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익과 태도의 변화로 독도의 소속과 행방, 즉 현상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과정과 이 시기에 인쇄된 <대동아항공도>에 나타나는 독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Gaihōzu 지도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Gaihōzu 지도 전체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울릉도 및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 지도를 조사하고 Gaihōzu 지도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要語: Gaihōzu 지도, AMS, Army Map Service, 독도, 대동아항공도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mengmengyu8@gmail.com)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2집, 305-333,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305〕

www.kci.go.kr

<ABSTRACT>

The Gaihōzu maps deposited in universities have recently aroused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maps are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sources of modern history (Anderson 2001). The researchers and libra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entitled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held at the beginning of October 2011 at Stanford University, showed much interest in learning about these cartographic documents.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 of Stanford University has 82sets of 8,000 collection of Gaihōzu Maps. Among these maps, Ulleungdo and Dokdo maps were produced in the year 1903, 1927, 1938, and 1944. Through the maps that were produced in 1903, before Japan deprived Korea's diplomatic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they illegaly gathered information about Korea and produced Korean maps.

The maps can be categorized by two types: USA military confiscated the maps produed by Japanese army and maps that USA army reprinted at Tokyo.

Gaihōzu maps were topographic maps based on espionage and surveying in secret. Additionally, it has no political awareness. Gaihōzu maps had never changed what Dokdo looked like. The change of USA and Japan's political benefit and behavior after the Second World War, Dokdo's affiliation and Dokdo's whereabouts, thus the current situation, changed.

Research on the Gaihōzu maps is in basic steps. We need to understand Gaihōzu Map' whole scale in USA and the contents of it. Including Ulleungdo and Dokdo maps, we should investigate the maps of Korean Peninsula and secure the Gaihōzu Map's image.

Key words: Gaihōzu map, AMS, Army Map Service, Dockdo, Dadonga-Hanggongdo

www.kci.go.kr

1. 서 론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 일본은 막강한 힘을 열망하였고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기 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과 근접한 한반도를 필두로 비밀리에 인근 아시아 국가의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제작한 수 천 여장의 군사기밀지도를 압수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렇게 복제된 지도들은 미국의 여러 대학과 기관에 배포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은 이 지도들을 소장해오고 있다. 아시아 각 지역을 분할하여 그린 이 지도에는 해당 지역의 기후, 운송 체계, 인구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Gaihōzu: Japanese imperial maps”[1]로 불리우는 지도로 1870년경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 러시아, 중국 본토, 타이완 등에 첩보를 보내어 제작하기 시작한 군사기밀지도이다.

2008년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생 메이유 헤시(Meiyu Hsieh)는 2000년 전 중국 한나라의 왕조 발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스탠퍼드의 브래너 지구과학 도서관(Branner Earth Sciences Library)의 고지도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하다가 8,000여 점에 이르는 일본의 군사기밀지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2011년 브래너 지구과학 도서관에서는 Gaihōzu 지도 전문가인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고바야시(Kobayashi)를 초청하여 학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 대학 도서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Gaihōzu 지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커지고 있다.

지도는 이미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위치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이다. 또한 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는 지도의 주제나 지도의 활용 등을 설명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여 지도 제작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Gaihōzu 지도 연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는 당시와 현재의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일본의 한반도 및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토 인식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식민 치하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역사적 자료이자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야기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하여 과거 일본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메이지 시기 Gaihōzu지도에 대한 연구

2.1 한국 학자의 메이지 시기 Gaihōzu지도에 대한 연구

과거 일본의 측량기술은 한반도로부터 불교전승과 함께 전해졌으며, 이와 같은 측량술의 교류는 18세기 초기까지 지속되었다(李鎭昊・全炳德, 2007, 435). 19세기 초 일본의 이노 다다타카(Inō

1) 이 지도는 한국에서 일본제국기 군사기밀지도, 외방도(外邦圖) 등으로 통칭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명명하는 Gaihōzu라는 명칭을 따른다. 일본 학자들은 ‘Japanese overseas map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www.kci.go.kr

Tadataka 伊能忠敬, 1745~1818)는 당시 일본 최고수준의 지도로 평가받는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를 제작하였다. 그렇지만 1860년대까지도 일본의 근대적 지도제작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이 시기 일본은 명치유신을 거쳐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천황절대주의와 반봉건적 지주제가 승리하는 정치・경제적 분위기에 있었다. 1854년 미일수호조약을 통한 미국에 의한 강제적 개방은 일본의 위기였으며 동시에 국론의 분열로 이어져 막부의 종말에 이르게 된다. 한편 막부 말기의 양이(攘夷)론자들은 이러한 서세동점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전체를 차지하여 서양 열강에 대항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정한론(征韓論)을 구상하게 되었다.[2] 1874년 타이완 침략에 이어 1875년 9월 20일에는 군함 운요호(雲楊號)를 동원하여 강화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대만, 남만주, 사할린 착취를 위한 시작이었으며 그때부터 육군성의 참모본부 전신인 '제 6국'은 최초로 해외첩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해외 첩보활동 및 비밀지도 제작에 대한 한국 학자의 연구는 남영우의 <일본 참모본부 간첩보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 근대지도의 제작과정>[3]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참모본부 소속의 첩보원들이 1870년대부터 한국에 파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첩보 활동을 통하여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을 출판한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1890년대에는 본격적인 측량활동을 단행하여 군용비도(軍用秘圖)라는 지형도를 제작한 과정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에도 남영우는 일본제국기에 제작된 비밀지도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였다. <조선말 일본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4]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간첩대의 파견 경위와 측량 배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첩보활동이 단순한 지도제작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요지지서』 간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기관 등에 대한 첩보활동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당시 일본의 비밀지도가 미군정하에서 미국으로 옮겨진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 소장 일본제국기 군사기밀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영우의 최근 연구인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진중일지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5]는 항일의병대를 소탕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된 보병 제14 연대가 작성한 『진중일지』의 「전투약도」를 고찰한 것이다. 이 일지에 기록된 전투상황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은 압승에 가까운 전투를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 토벌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된 작전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벌대가 가지고 전투에 이용한 지형도의 축척은 대부분 1:5만이었으나

2) 홍순호, "征韓論 - 근대 일본의 침략사상과 조선정벌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1996), 32-33.
3) 남영우, "일본 참모본부 간첩보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 근대지도의 제작과정," 『문화역사지리』 제4호(1992), 77-96.
4) 남영우 외, "조선말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6호(2009), 761-778.
5) 남영우 외,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진중일지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3호(2012), 407-425.

www.kci.go.kr

1:2만 축척, 1:1만 축척을 비롯하여 1:10만, 1:20만 축척 등 다양한 지도가 이용되었고 이 지도들은 일본 첩보대의 첩보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제작된 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지도이다. 즉, 비밀지도는 실제 전투에 활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남영우의 연구를 토대로 양보경은 미국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비밀지도의 형태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6)]

현재까지 Gaihōzu 지도에 대한 연구는 제작 시기와 과정, 미 의회도서관 소장 지도를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미군이 압수한 Gaihōzu 지도의 그 후 처리 및 행방과 배포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뿐만 아니라 Gaihōzu 지도의 범위, 지도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도 시작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 Gaihōzu 지도는 일본제국의 팽창과 한반도가 식민화되기 이전에 비밀리에 제작된 지도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미국에 분포되어 있는 Gaihōzu 지도를 추적하여 지도의 소장기관과 지도의 범위 등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Gaihōzu 지도에 나타나는 울릉도 및 독도 지형을 통해 당시 일본의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태도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스탠퍼드 대학의 Gaihōzu지도 심포지엄

2008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일본제국기 비밀지도를 발견한 이래 자료의 조사 및 축척이 이루어져 왔는데 2011년 8월 8일에는 ≪동아시아 역사의 근원으로서 일본제국기 지도: 역사와 미래의 Gaihōzu≫[7)]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Kären Wigen은 189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의 드라마틱한 팽창과 이 시기 이전부터 제작된 Gaihōzu 지도의 의미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Introduction to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The Past and Future of the Gaihōzu”>[8)]를 통해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Gaihōzu 지도는 당시의 사회, 외교, 경제 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임과 동시에 당시 일본의 힘과 학문적 축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대학의 Shigeru Kobayashi는 <Japanese Mapping of Asia-Pacific Areas, 1873-1945: An Overview>[9)]라는 논문을 통해 1873년부터 Gaihōzu 지도의 제작 과정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Gaihōzu 지도의 행방 등에 대해 조명하였다. 웨슬리 대학의 Yoshihisa Tak Matsusaka는

6) 양보경 외, “19세기 후반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지도: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Vault본 지도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3호(2009), 32-46.
7)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A Symposium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aihōzu≫, October 8, 2011, Stanford University.
8) Kären Wigen, “Introduction to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The Past and Future of the Gaihōzu,”” *Cross-Currents E-Journal* (No. 2) (2012).
9) Shigeru Kobayashi, “Japanese Mapping of Asia-Pacific Areas, 1873-1945: An Overview,” *Cross-Currents E-Journal* (No. 2) (2012).

www.kci.go.kr

<Imagining Manmō: Mapping the Russo-Japanese Boundary Agreements in Manchuria and Inner Mongolia, 1907-1915>[10]를 발표했다. Yoshihisa는 1907년~1915년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내몽골에 흥미를 가지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역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리고 당시 외세의 청나라 영토에 대한 탐욕을 위해 Gaihōzu 지도를 기본도로 이용했다는 것을 UTA 대학 도서관의 Gaihōzu 지도를 통해 확인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David Fedman은 <Triangulating Chōsen: Maps, Mapmaking, and the Land Survey in Colonial Korea>[11]를 발표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Gaihōzu 지도가 결과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루하루 식민지화되어가면서 지리적 측량은 면밀해졌고 자연 자원에 대한 탐사 및 한반도에 대한 조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이었다. Gaihōzu 지도의 생산 과정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대한 힘을 과시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3. 세계 2차 대전 이후 Gaihōzu지도의 배치와 소장

3.1 Gaihōzu지도 소장 처

일본과 미국에 소장되어 있는 Gaihōzu 지도가 근현대 역사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에 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Anderson 2001 ; Kobayashi 2006). 2차 세계대전동안 일본은 측지학 조사국을 마닐라에, 지형조사국을 바타비아에 설치하고 Gaihōzu 지도의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광범위하게 조사 지역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미국 연안 가까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일본이 군사권을 축소하기 전에 대부분의 지도들은 불타버렸다. 1945년 9월 25일 미국 군대의 Colonel Dunbar가 이끄는 팀이 나가노에 위치한 지리조사국을 방문하여 원본 지도들을 확보하였다. 미군은 이 지도들을 도쿄(Tokyo 東京都) 신쥬쿠(Shinjuku 新宿區)의 이세탄(Isetan 伊勢丹)에 보내어 인쇄했고,[12] 판본은 치바시(Chiba 千葉市)의 이네게(Inage 稻毛)로 보내에 각각의 판본당 50장의 지도를 인쇄하였다. 원본과 새롭게 인쇄된 지도들은 미국의 AMS(Army Map Service)로 보내졌다. 이로써 1945년 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완성되었다(Shigeru Kobayashi, 2012).

미군은 일본군과 Gaihōzu 지도가 동아시아에 대한 중요한 지리적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10) Yoshihisa Tak Matsusaka,“ Imagining Manmō: Mapping the Russo-Japanese Boundary Agreements in Manchuria and Inner Mongolia, 1907-1915,” *Cross-Currents E-Journal* (No. 2) (2012).

11) David Fedman, “Triangulating Chōsen: Maps, Mapmaking, and the Land Survey in Colonial Korea,” *Cross-Currents E-Journal* (No. 2) (2012).

12) 일본은 패망하면서 많은 지도를 불태웠고, 일본의 지질조사국은 도쿄에서 나가노(Nagano 長野市)로 이전하였다. 같은 시기, 미군은 지형조사를 맡고 있는 64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쿄 이세탄에서 지도를 인쇄하였다.

www.kci.go.kr

생각했다. 특히 중국, 한국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에 주목하였는데, 이 지도들은 한국전쟁 당시 지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다.

미국의 AMS는 1946년, 미국과 캐나다 대학과 공공 도서관 150곳에 지도를 기부하였다(Ehrenberg 1981 ; Harris 1997). 특히 손으로 그린 초기의 지도는 미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1>은 1950년 2월 27일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로 Gaihōzu 지도는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Hawaii, llinois, Iowa, Louisiana,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Puerto Rico, Tennessee, Texas, Washington 등 26개 주 대학 도서관 및 기관에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California주에는 Berkeley University, Claremont College, Stanford University, San Diego Public Library,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Library 5개 기관에 지도가 각각 소장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Gaihōzu 지도 소장처가 있는 지역이다.[13] 이밖에 llinois주에 University of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두 곳, Massachusetts주에 Harvard University, Clark University 두 곳, New York주에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New York Public Library 두 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주는 각각 한 곳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의 소장처는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도의 수와 내용은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Libraries and institutions that received “captured maps” from the Army Map Service[14]

State	Library and Institution	Remarks
Alabama	Main Library, Alabama Polytechnic Institute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 Library	
Arkansas	General Library, University of Arkansa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ibrary	
	Claremont College Library	
	Hoover Library, Stanford University	Presently in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
	San Diego Public Library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Library	
Colorado	University of Colorado Libraries	
Connecticut	Yale University Library	

13) Gaihōzu 지도 소장처가 California주에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으나, 일본에서 미국으로 지도를 수송 할 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에 지도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 Source ;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 (Captured Maps), attached to a letter from Lieutenant Colonel C.V. Ruzek, Jr. of AMS to AMS depositories, February 27, 1950, provided by Mr. John M. Anderson (Cartographic Information Cente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Anthropology,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Ms. Gwen Curtis (Map Collection, Science Library, University of Kentucky Libraries).

www.kci.go.kr

State	Library and Institution	Remarks
District of Columbia	National Geographic Society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Library	
Hawaii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llinois	Map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Rosenwald Hall
	Map Library, North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Hal
Iowa	State University of Iowa Libraries	Government Document Department
Louisiana	Geology Libra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ently in cartographic Information Cent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Geographical Explo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ently in Harvard Map Collection
	Clark University Library	
Michigan	General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Minnesota	Department of Geology and Geography, Carleton Colle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New Mexico	University of New Mexico Library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Presently in the Golda Meir Library,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New York Public Library	
Ohio	Cleveland Public Library	
	Department of Geology and Geography, Oberlin College	
Oklahoma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State Library	
Oregon	Library Serials Department, Oregon State College	
Pennsylvania	University of Pittsburgh Library	
Puerto Rico	University of Puerto Rico Library	
Tennessee	University of Tennessee Library	
Texas	Fondren Librar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Washington	State College of Washington	

3.2 Stanford University Earth Sciences Library 소장 Gaihōzu지도

스탠퍼드 대학 지구과학 도서관에는 세계 2차 대전 직후 미국 군으로부터 기증받은 Gaihōzu 지도 8,000여 점이 있다. 이 가운데 34%는 일본, 23%는 중국, 13%는 소비에트 동쪽, 8%는 한국, 7%는 타이완, 15%는 동남아시아의 지도이다. 그리고 80%의 지도는 1930년에서 1940년대에 제작된 지도이다.

<그림 1>은 스탠퍼드 대학 지구과학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15] 스캔한 지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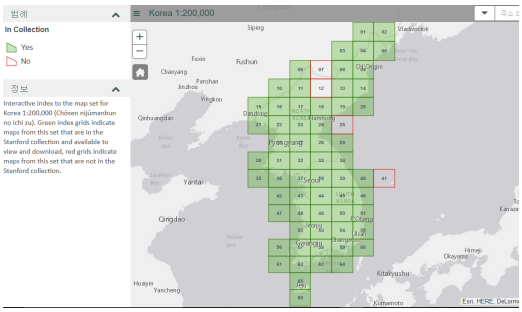
15) http://stanford.maps.arcgis.com/apps/PublicGallery/index.html?appid=1ed3022fc7884690a2f137bce9dfe4fe

www.kci.go.kr

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고 고화질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Gaihōzu 지도가 스캔되어 있다.

<그림 1> 스탠퍼드 대학 일본제국기지도 온라인 검색 창

<그림 2>는 1:200,000 KOREA 지도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도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지도 위에 여러 개의 sheet가 표시되어 있는데 각 sheet를 클릭하면 그 sheet에 해당하는 지도가 나타난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sheet 부분은 스캔된 지도가 있는 부분이고 붉은 색은 지도가 없거나 스캔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림 3>은 <그림 2>의 37번 sheet를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난 경성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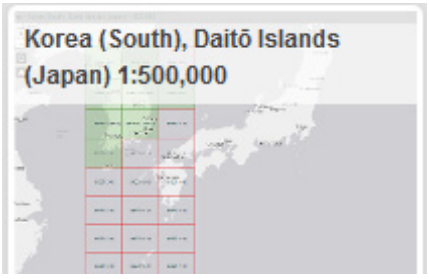


<그림 2> KOREA 1: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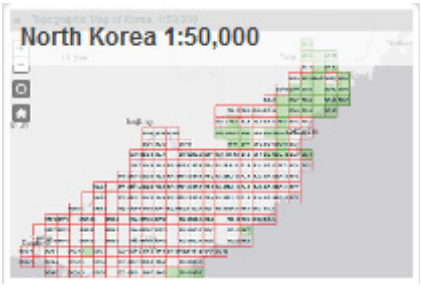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2>의 37sheet.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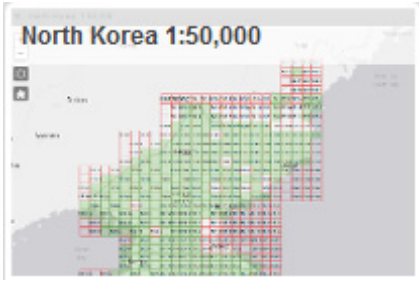
이 가운데 한반도가 포함된 지도는 “Korea 1:50만, Korea 1:이만 오천, North Korea 1:5만, Korea 1:2십만, Far East 1:2백만, South Korea 1:오만, East Asia 1:백만, Asia 1:백만, East Asia 1:오십만 지도”이다. 1:오만 축척의 Korea 지도부터 1:백만 축척에 이르는 Asia 지도에 다양한 크기로 한반도가 그려져 있다. 특히 한반도를 North Korea와 South Korea로 나누어 자세히 조사하고 지도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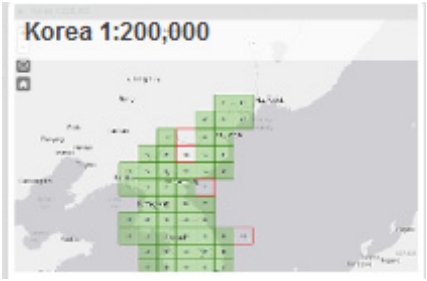
<그림 4> Korea 1:5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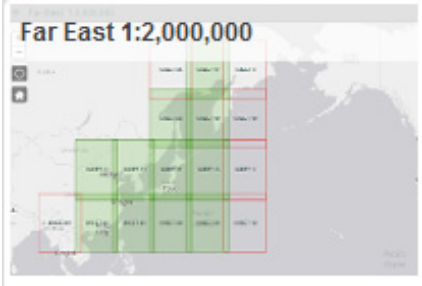
<그림 5> North Korea 1: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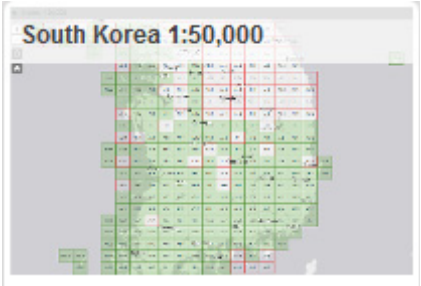
<그림 6> North Korea 1:5만



<그림 7> Korea 1:2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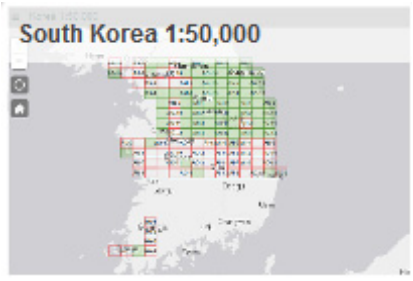


<그림 8> Far East 1:2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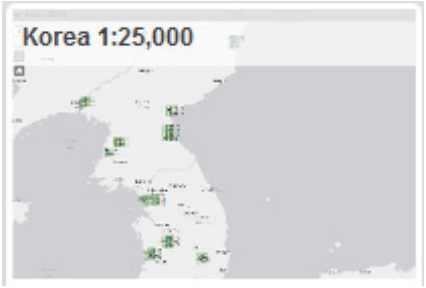


<그림 9> South Korea 1: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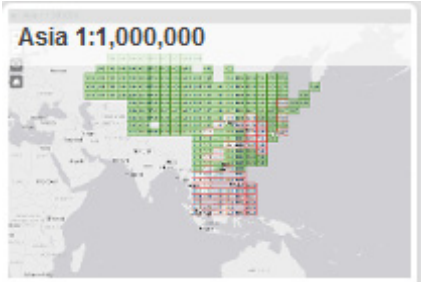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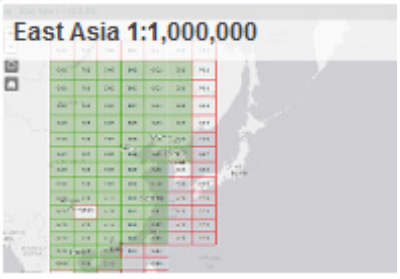
<그림 10> South Korea 1:오만



<그림 11> Korea 1:이만 오천



<그림 12> Asia 1:백만



<그림 13> East Asia 1:백만

<그림 14> East Asia 1:오십만

4. Gaihōzu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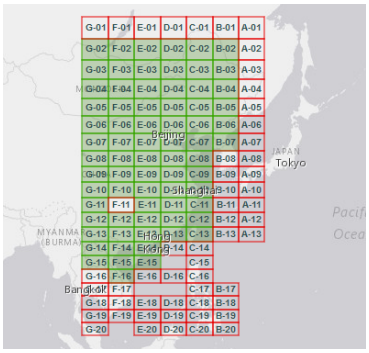
4.1 East Asia 1:1,000,00 <경성>

Gaihōzu 지도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부분의 지도는 모두 6점이다. <그림 16>은 1903년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East Asia 1:1,000,000> 가운데 sheet B-07 부분의 지도 <京城>[16]으로 <동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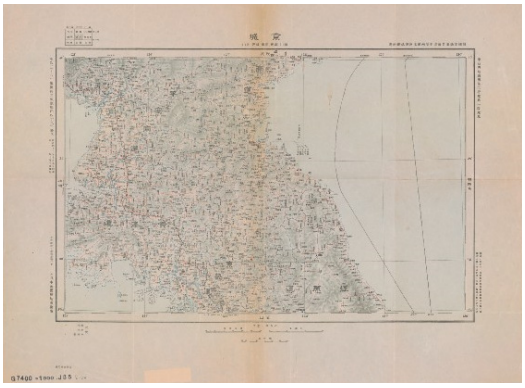
16) East Asia 지도의 원제목은 <동아여지도(東亞輿地圖)>이며, <京城>은 이 지도의 서쪽 2행, 북쪽 1단 부분이다.

www.kci.go.kr

지도(East Asia)>의 서쪽 2행, 북쪽 1단 부분에 해당한다. 부제는 '춘천, 해주, 평양, 함흥, 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라는 주기가 있다. <그림 17>은 <그림 16>의 강원도 고성부분과 그 동쪽 바다를 확대한 것이다. <京城>의 서쪽 sheet는 <여순> 지도이며, 동쪽 sheet는 <울릉도>이다. <그림 15>의 붉은 색 sheet A-07은 <울릉도> 부분으로 <동아여지도>의 한 부분이지만 스탠퍼드 대학에 소장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울릉도 지역의 지형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림 15> <East Asia 1:1,000,000> index sheet



<그림 16> <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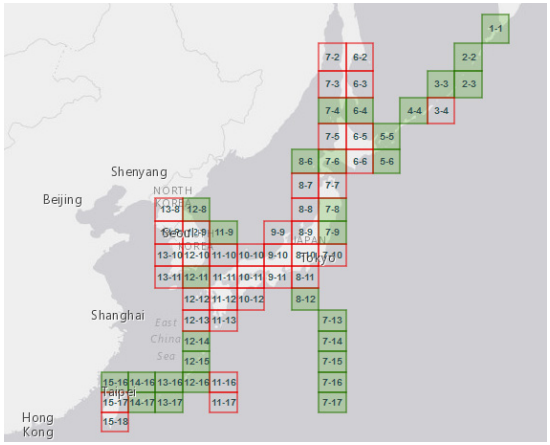
<그림 17> <그림 16>의 강원도 부분 확대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해이며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난 것은 1910년이다. 지도의 제작 년대 1903년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전에 불법으로 Gaihōzu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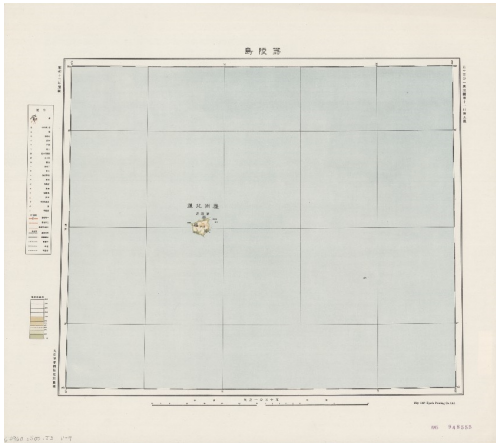
www.kci.go.kr

4.2 East Asia 1:500,000 <울릉도>

다음 <그림 18>은 East Asia 1:500,000지도의 index sheet이다. 이 가운데 11-9 sheet는 울릉도 지역의 지형도이다. 이 지도는 1:500,000 <여지도>이며, 1938년 일본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지도를 1947년 5월, 교토에서 다시 인쇄한 것이다. 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교토에서 인쇄[17]했다는 내용과 AMS(Army Map Service)의 프린팅 넘버 "948555"가 기록되어 있다. 프린팅 넘버를 통하여 U.S. Army가 인쇄한 지도를 모두 카운트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8> <East Asia 1:500,000> index sheet



<그림 19>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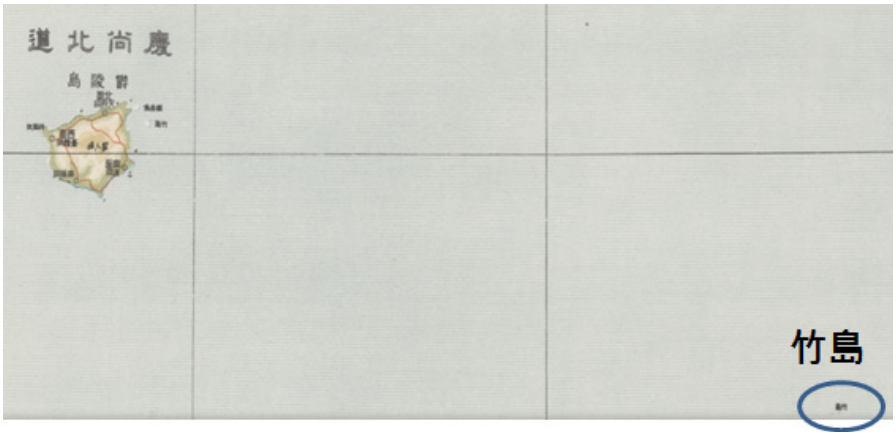
이 지도에는 경상북도에 소속된 두 섬 울릉도와 죽도가 그려져 있다. 왼쪽 상단에 큰 섬이 울릉도이며 오른쪽 하단에 작게 그려진 섬이 죽도(竹島, 독도)이다.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Shimane Prefectural Notice No.40)[18]에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소속된 섬이며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05년 이전는 마쓰시마(松島), 량코도로 인식하였던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기 시작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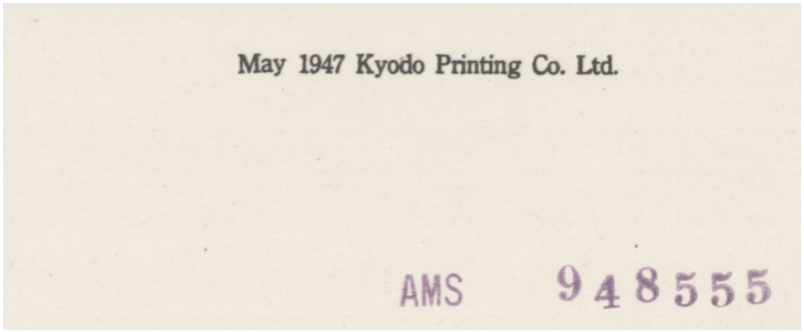
17) 2012년 Shigeru Kobayashi는 논문 "Japanese Mapping of Asia-Pacific Areas, 1873-1945: An Overview"에서 미군이 압수한 지도를 도쿄 신쥬쿠 이세탄 빌딩에서 다시 프린팅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지도는 모두 1947년 4월 또는 5월에 교토에서 인쇄한 것이다. 도쿄에서 인쇄한 본 외에 교토에서도 지도를 인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18) [島根縣告示第40號-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www.kci.go.kr



<그림 20> <그림 19>의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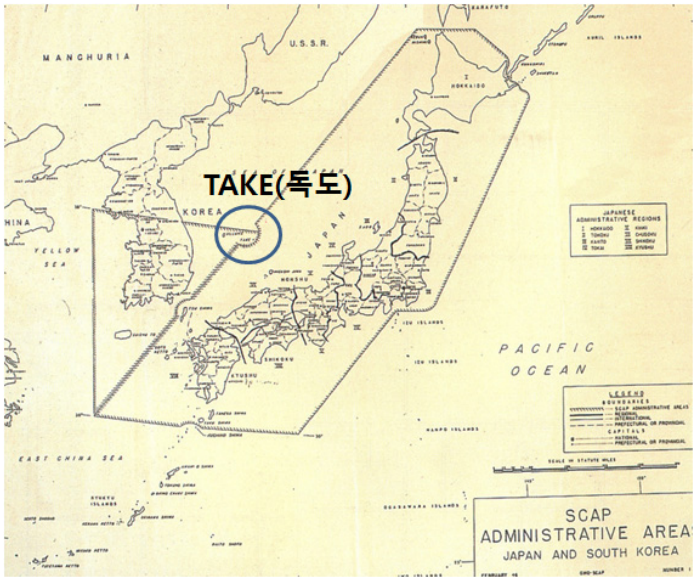


<그림 21> <그림 19>지도 하단 확대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왔으며 국제사회에도 정치적 헤게모니 아래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지도는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즉 죽도(竹島)를 경상북도에 소속된 섬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도가 누구의 영토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매우 유동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 전후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헤게모니 속에서 독도의 소속은 하나의 생물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했다. 1946년 1월 29일자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에게 보내는 지령) 제677호”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아래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Gaihōzu 지도는 독도의 정치적 위치가 아닌 지리적 위치를 표현한 지형도이기 때문에 Gaihōzu 지도에 독도는 대한민국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그려져 있다.

www.kci.go.kr



<그림 22> SCAPIN-677 부속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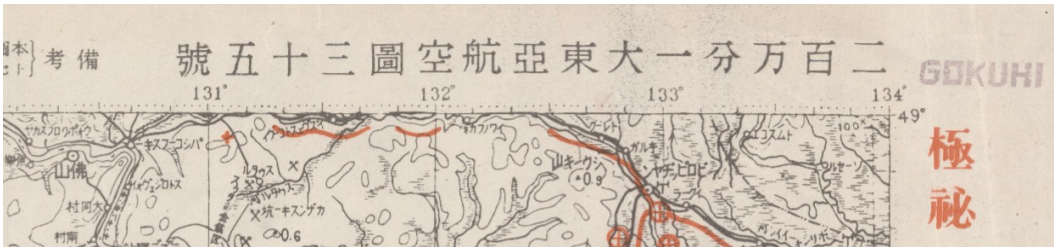
4.3 East Asia, Southeast Asia, Alaska 1:2,000,000 <대동아항공도>

<그림 23> 1:2,000,000 East Asia, Southeast Asia, Alask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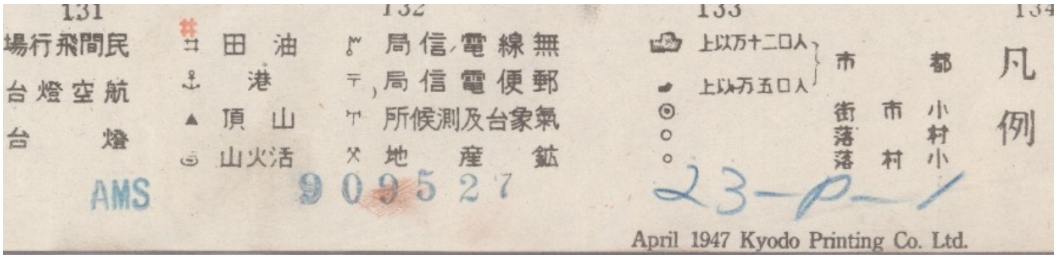
<그림 24> <그림 23>의 Sheet 38 <대동아항공도>

www.kci.go.kr

<그림 23>은 1:2,000,000 East Asia, Southeast Asia, Alaska 지도 Sheet이다. 이 가운데 Sheet 38은 한국 부분으로 <그림 24> <대동아항공도(大東亞航空圖)>이다. 이 지도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참모본부에서 제작한 비밀지도로 <이백만분의 일 대동아항공도 35호>라는 제목과 함께 '極秘(극비)'라는 붉은 색 도장이 찍혀 있다(<그림 25>). <그림 26> 지도의 하단에는 'AMS 909527'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데, 즉 U.S. Army Map Service에서 제공하는 지도이며 지도의 번호는 909527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지도는 1944년에 제작된 원본을 1947년 4월 교토에서 인쇄한 것이다.



<그림 25> <대동아항공도> (극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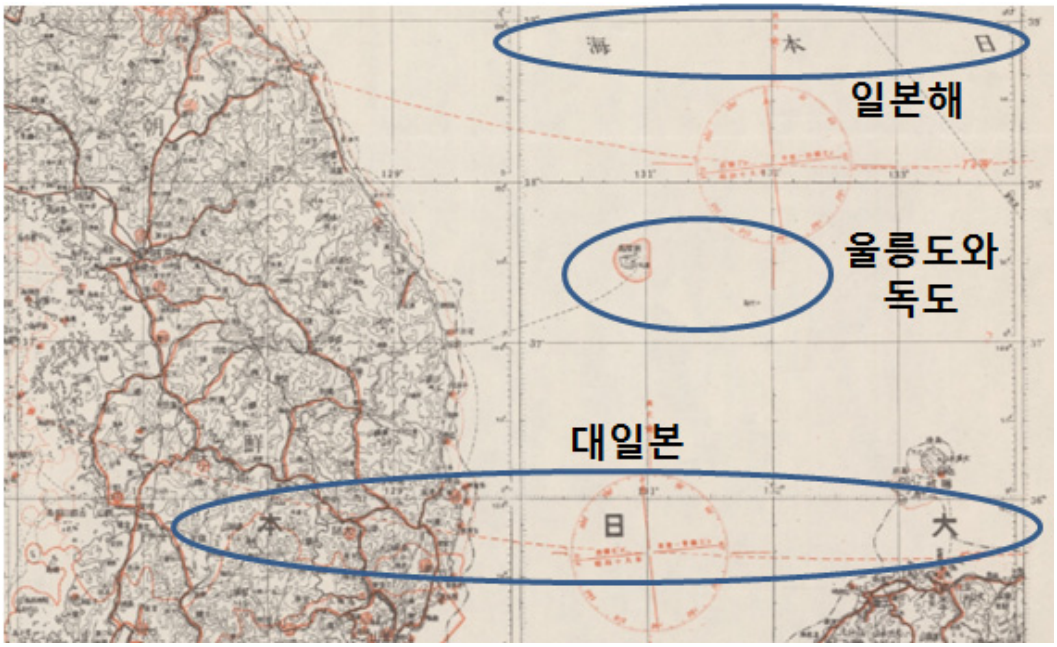
<그림 26> 지도의 인쇄 정보

<그림 27>은 <대동아 항공도>의 울릉도와 독도 부근을 확대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치하에 있었던 마지막 무렵인 1944년에 제작되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으며, 일본과 한반도에 걸쳐 국가의 명칭을 '대일본'으로 표기하여 한반도가 일본에 소속된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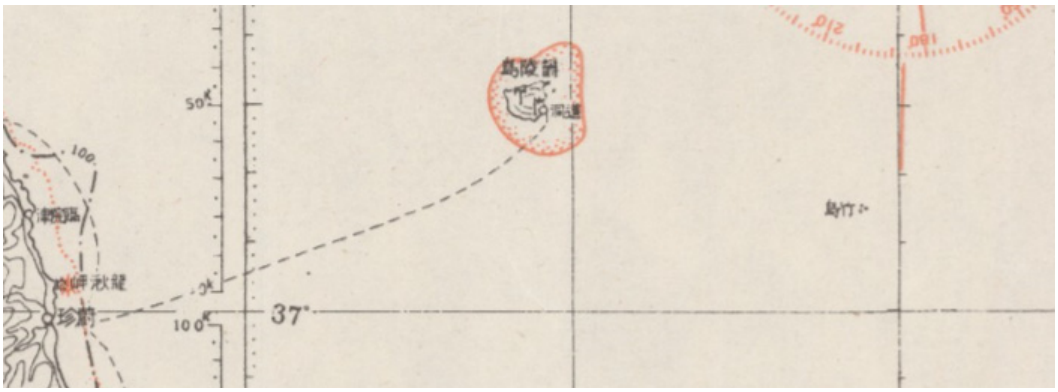
<그림 28>은 울릉도와 독도를 확대한 지도이다. 독도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어 있다.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표기가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와 동해에 걸쳐 '대일본'이라고 명기하여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에 소속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지도에 그렸다. 한국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말기에 그려진 지도이므로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지도를 그렸다. 한편, 1938년에 제작한 <그림 19> <울릉도> 지도는 한일합병조약 이후에

www.kci.go.kr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소속된 섬으로 표현하였다. 이 두 지도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 한 이후 바로 지도에 일본의 영역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울릉도와 독도 부분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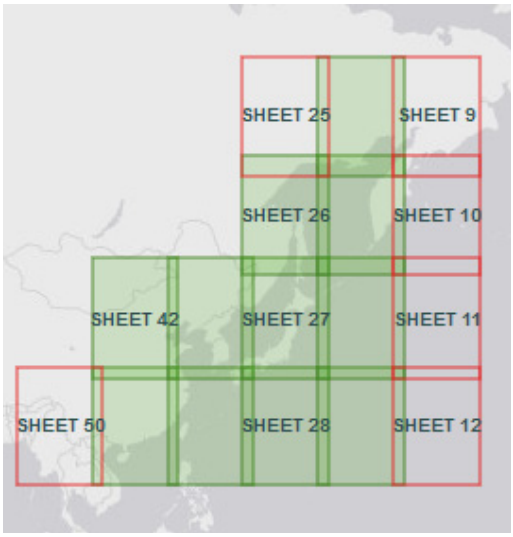


<그림 28> 울릉도와 독도

www.kci.go.kr

4.4 Far East 1:2,000,000 <항법용경위도도>

아래 지도 <그림 29>는 Far East 1:2,000,000지도이다. 이 가운데 sheet 35는 한반도 부분에 해당하는 <이백만분의 일 항법용경위도도(航法用經緯度圖)>이다(<그림 30>). 지도의 부외비(部外秘)라는 표기(<그림 31>)를 통하여 극비로 만들어진 육군참모본부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의 지도 인쇄 정보에는 'AMS 992052'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U.S. Army Map Service에서 제공하는 지도이며 지도번호는 992052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은 일본의 비밀지도를 다시 인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넘버링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이 지도는 다른 지도들과는 다르게 원본을 새로 인쇄했다는 프린팅 표식이 없다. 이것은 이 지도가 일본이 1944년에 제작한 원본 지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지도 가운데 하나이며 내용을 가감하여 새롭게 인쇄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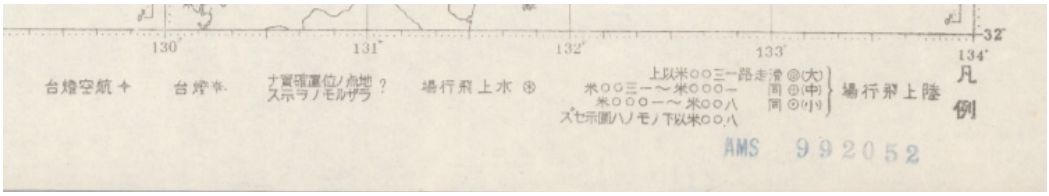


<그림 29> Far East 1:2,000,000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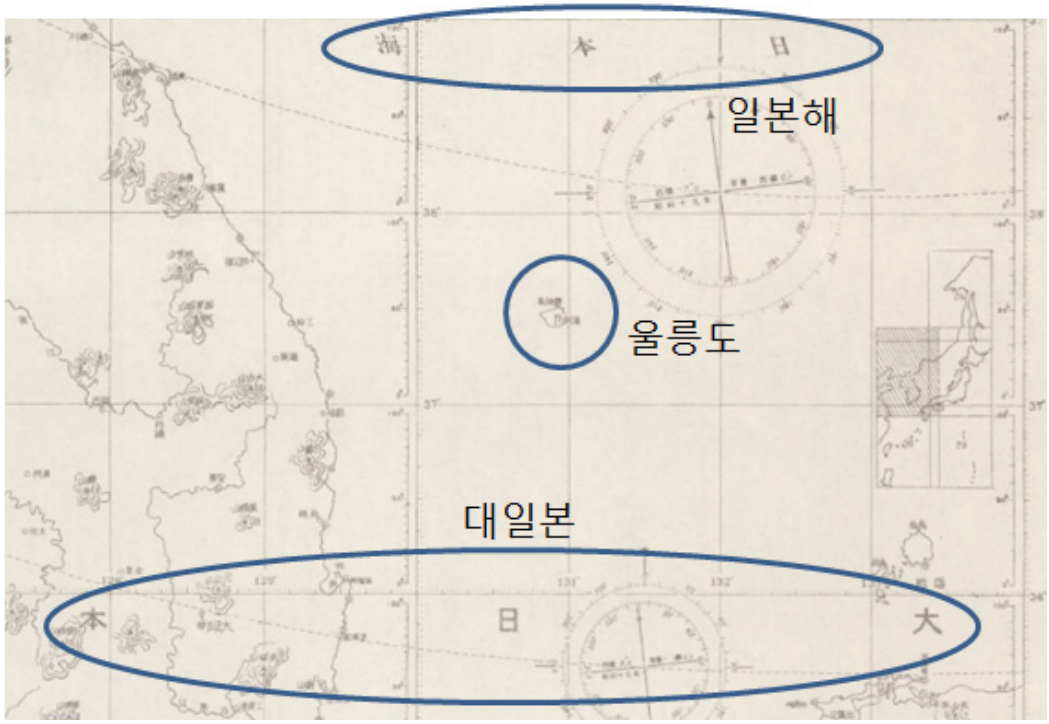
<그림 30> sheet 35 <항법경위도도>

<그림 31> <이백만분의 일 항법용경위도도(航法用經緯度圖)>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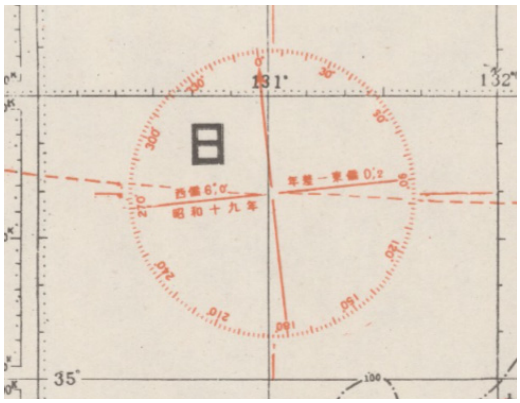
<그림 32> 지도의 인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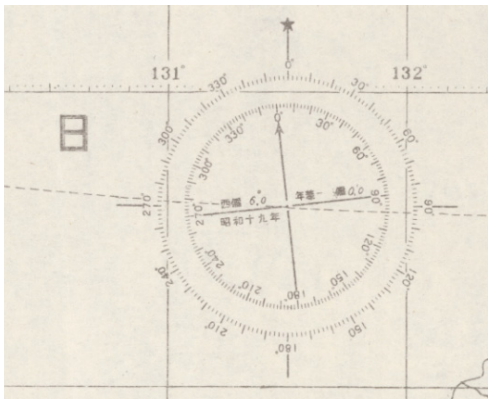
<그림 33> 울릉도 부분 확대도

이 지도는 <그림 23> <대동아항공도>와 제작 시기, 축척, sheet의 번호가 같다. <그림 33>에 나타나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 바다에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과 한반도에 걸쳐 '대일본'이라고 일본 국적을 명기한 것 등 지도의 내용도 같다. 뿐만 아니라 <그림 34>와 <그림 35>에 나타나듯이 항공도법 표기와 '소화 19년'이라는 글자 등 전체적인 지도의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두 지도는 같은 베이스로 만들어진 지도이다. 그런데 <항법용경위도도>는 주요 산의 등고선 표식과 주요 지명만을 표기한 비교적 단순한 지도인 것에 비하여 <대동아항공도>는 내용이 더 풍부하고 전체 지형의 높낮이를 등고선으로 나타내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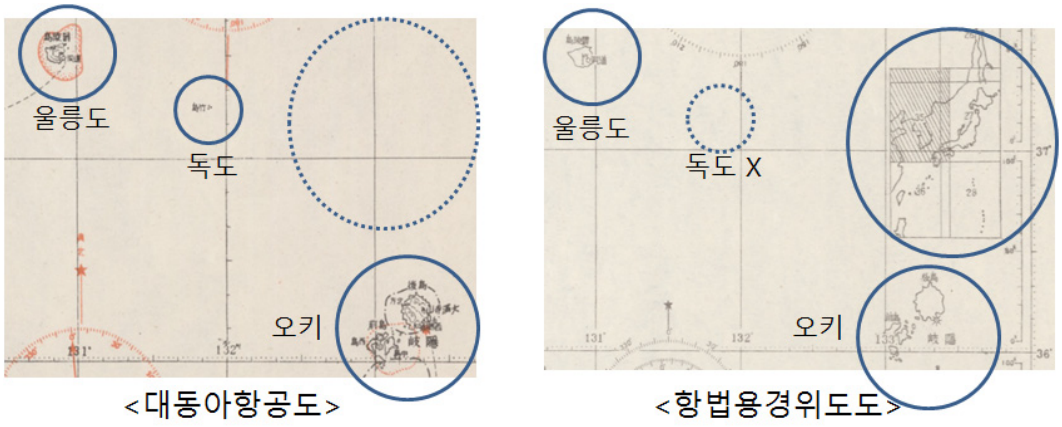


<그림 34> <대동아항공도>



<그림 35> <항법용경위도도>

특히 두 지도 울릉도 부분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은 <대동아항공도>와 <항법용경위도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대동아항공도>에는 울릉도와 함께 울릉도 동남쪽, 그리고 오키(은기, 隱岐)도 사이에 독도(죽도, 竹島) 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항법용경위도도>에는 독도가 없다.



<그림 36> <대동아항공도>와 <항법용경위도도> 울릉도 부분

한편 <그림 37> 지도와 <그림 38> 울릉도 지도의 지도 인쇄정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7>의 두 지도는 지도의 기본도가 같으며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그림 38>의 두 울릉도 지도는 완전히 같은 지도이다. 단지 <그림 38>의 두 울릉도 지도는 지도의 인쇄정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외비'라는 표시가 있는 지도는 1947년 교토에서 프린팅하지 않은 원본 지도이며 AMS넘버만 있다. <그림 37>의 <항법경위도도> 역시 '부외비'라는 표시와 함께 AMS넘버만 있는

www.kci.go.kr

원본지도이다. 그런데 <대동아항공도>와 또 다른 <울릉도> 지도는 '부외비' 표시가 없고 교토에서 인쇄되었다는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표 2> <대동아항공도>와 <항법경위도도> 내용 비교[19]

	제작년도	독도 유무	지도 표기	비고
대동아항공도	1947년	있음	극비	1944년 지도를 다시 인쇄한 것.
	1944년	없음	없음	두 지도의 원도가 같음
항법용경위도도	1944년	없음	부외비	

이것을 통해 '부외비' 표기가 되어 있는 지도는 미군에 의해 다시 인쇄된 지도가 아닌,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수거해 간 원본지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항법용경위도도>는 일본 육군참모본부에서 부외비로 제작한 중요한 군사지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울릉도만 있고 독도는 누락되어 있다.

<항법용경위도도>와 <대동아항공도>의 원도는 같으며, 처음 제작된 시기는 1944년이다. <대동아항공도>는 1944년 원도를 1947년에 다시 인쇄한 것이다. <대동아항공도>의 원본인 1944년 지도에는 독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에게 독도가 중요한 의미의 섬이 아니었거나 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1947년, 미군이 <대동아항공도>를 교토에서 프린팅 할 때 독도를 새롭게 추가하여 그렸다. '극비'라는 붉은색 스탬프는 <대동아항공도>가 원도가 아니라 다시 인쇄된 지도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1947년, 지도를 다시 인쇄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지도상에 추가되었다.

미국은 1947년 7월,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에 일본과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소간 대립이 확대되면서 소련이 반대하였고, 사실상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 7년 가까이 전후(戰後)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최완, 2012, 16-17). 1947년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20](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초안이 수십 차례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독도 처리 문제도 여러 번 수정되었다.[21]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첫 번째 초안인 '1947년 3월 19일 U.S. Draft 1'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었다. 이후 1947년 4월과 5월에 Gaihōzu 지도가 교토에서 인쇄되었다.[22] 지도가 인쇄된 이후 1947년 8월에 두 번째 초안인 'U.S. Draft 2'가 작성되었는데, 여전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독도를 새롭게 그려 넣은 <대동아항공도>

19) Source ; Army Map Service Depository List (Captured Maps), attached to a letter from Lieutenant Colonel C.V. Ruzek, Jr. of AMS to AMS depositories, February 27, 1950, provided by Mr. John M. Anderson (Cartographic Information Cente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Anthropology,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Ms. Gwen Curtis (Map Collection, Science Library, University of Kentucky Lib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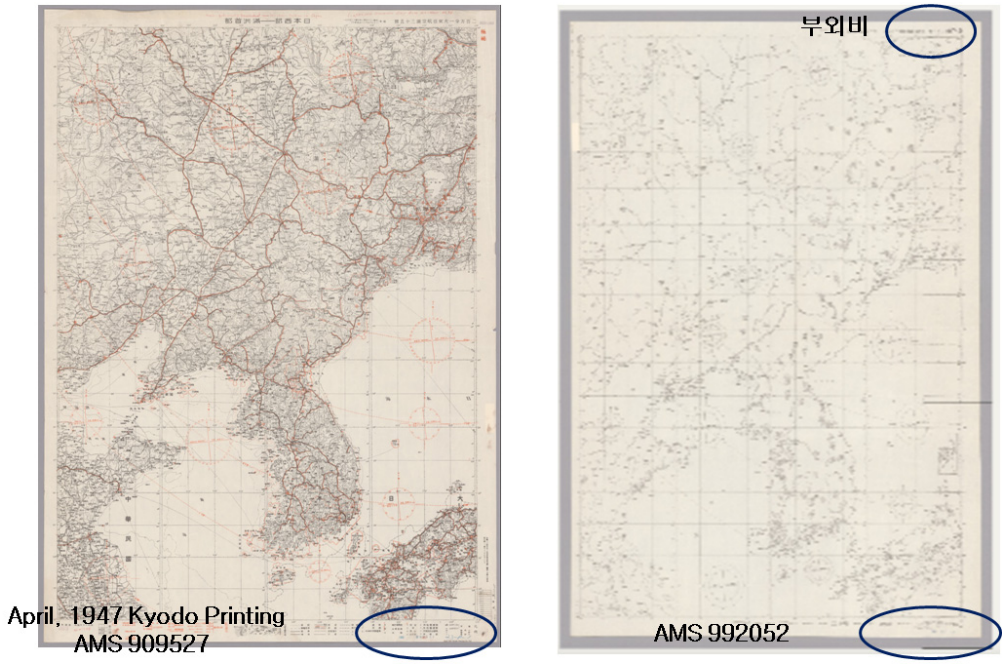
20)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고 다음해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21) <표 3>은 최완이 작성한 표이다(최완, 2012, 28).

22) <그림 24> 대동아항공도 ; 1947년 4월 printing
<그림 16> 경성, <그림 19> 울릉도, <그림 40> 울릉도 ; 1947년 5월 pr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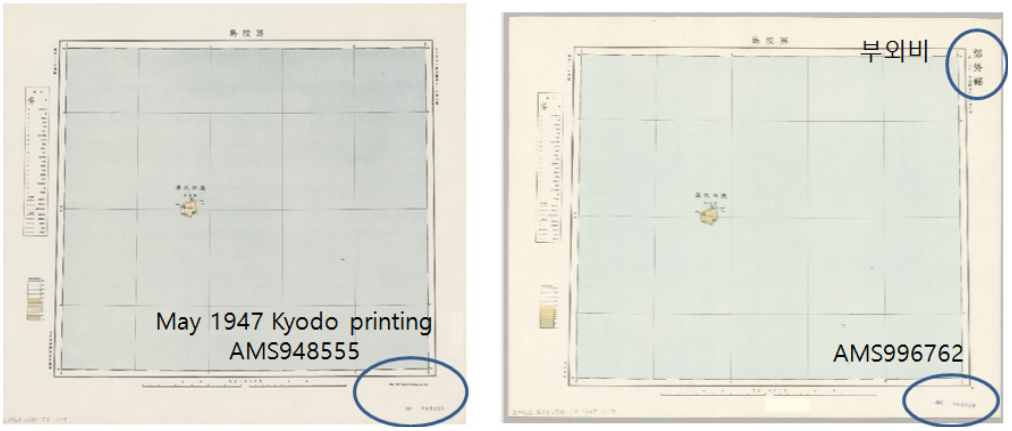
www.kci.go.kr

는 첫 번째 초안과 두 번째 초안 사이에 인쇄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이 만들어진 시기와 지도의 인쇄시기를 비교하여 볼 때, 1947년 4월에 인쇄된 <대동아항공도>의 독도는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지도상에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으로부터 압수해갔던 Gaihōzu 지도가 2년 후인 1947년에 다시 인쇄되기 시작한 것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동아항공도> <항법용경위도도>

<그림 37> <대동아항공도>와 <항법용경위도도> 인쇄정보 비교



<그림 38> <울릉도> 지도 인쇄정보 비교

www.kci.go.kr

<표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문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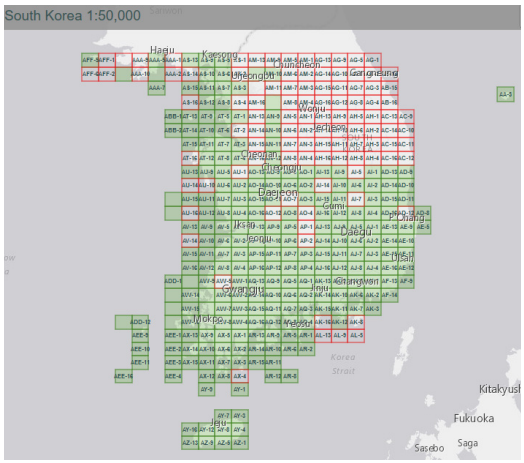
연도/월일		초안 일련번호(차수)	내용
1947.	3.19.	U.S. Draft 1	독도 한국 영토 표기
	8.5.	U.S. Draft 2	
1948.	1.8.	U.S. Draft 3	
1949.	10.13.	U.S. Draft 4	
	11.2.	U.S. Draft 5	
	12.8.	U.S. Draft 6	독도 일본 영토 표기 Sebald 전문 전달(11.14.)
	12.19.	U.S. Draft 7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3항에 독도 한국 영토로 표기
	12.29.	U.S. Draft 8	독도 일본 영토로 재표기 Sebald 재고 요청(12.29.)
1950.	1.3.	U.S. Draft 9	상동
	8.7.	U.S. Draft 10	독도 표기 삭제 한일관계 UN결의 준수 적시
	9.11.	U.S. Draft 11	
1951	2.28.	U.K. Draft 1	독도,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오기
	3.00.	U.K. Draft 2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수정
	3.12.	U.S. Draft 12	독도 표기 삭제 한일관계 UN결의 준수 적시
	3.17.	U.S. Draft 13	
	4.7.	U.K. Draft 3	독도, 울릉도 한국 영토로 표기
	5.3.	1차 영미합동초안	독도 표기 삭제
	6.14.	2차 영미합동초안	독도 표기 삭제
	7.3.	3차 영미합동초안	상동(오자 수정)
	9.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상동

1905년 시마네현 고시, 1946년 SCAPIN-677,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일본과 국제사회는 무력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독도를 통해 강대국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헤게모니 아래 독도의 소속은 변화되었다. 그리고 Gaihōzu 지도에 나타나는 독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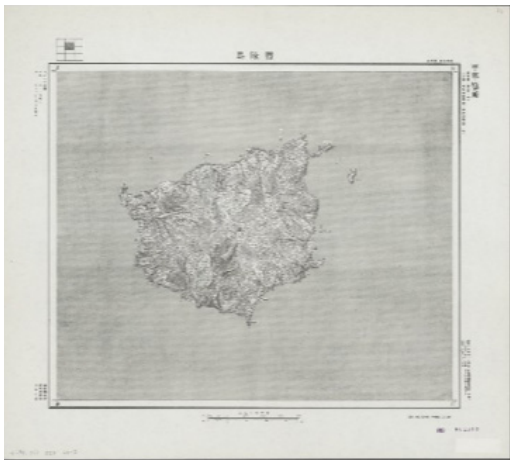
4.5 South Korea 1:50,000 <울릉도>

<그림 39>는 1:50,000 South Korea 지도의 index sheet로 제주도 및 울릉도 등 도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대 오만 축척의 지도이기 때문에 sheet의 수가 많고 지도가 매우 자세하다. 이 가운데 AA-3은 <울릉도> 지도이다(<그림 40>).

www.kci.go.kr



<그림 39> 1:50,000 South Korea index sheet



<그림 40>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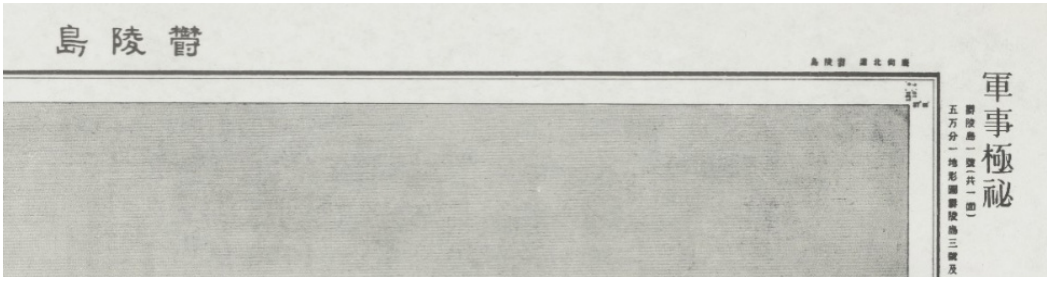
이 지도는 1927년 측도하여 1936년에 제작한 1:50,000의 매우 자세한 대축척 지형도이며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일본의 지도제작 기관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1866년부터 1876년 사이 일본의 지도제작은 군부보다는 내무성(內務省)의 측량국(測量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889년 5월,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가 육군참모총장의 독립적 예하부대로 발족됨에 따라 군부가 측량 및 지도제작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육지측량부는 육군참모본부의 내국도 외국도 아닌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도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림 41> <그림 40> <울릉도> 지도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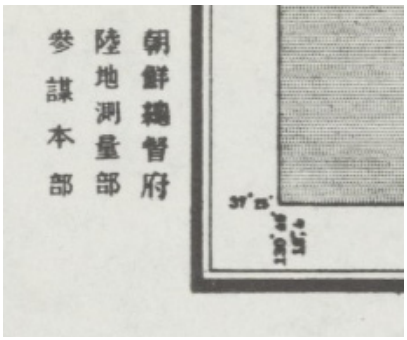
<그림 43>의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지도는 제작처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참모본부' 세 곳으로 되어있다. '육지측량부'와 '참모본부'를 각각 표기한 이유는 육지측량부가 육군 산하의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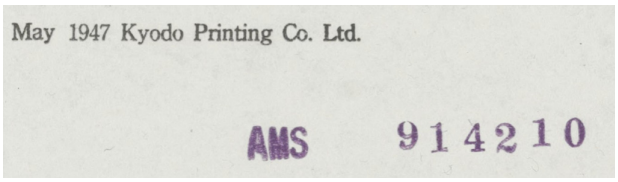
기관이기는 하지만 참모본부와 대등한 독립적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 제국주의 최고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도 명기되어 있다. 1947년 5월 교토에서 인쇄하였으며 AMS넘버는 914210이다.



<그림 42> 지도 인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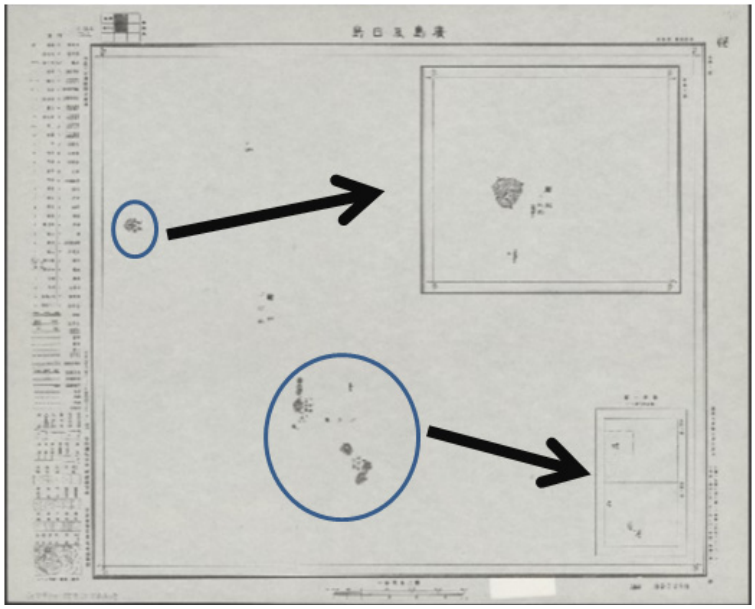
<그림 43> 지도제작처



<그림 44> 지도 인쇄정보

<그림 45> 1:50,000 South Korea index sheet 확대도

www.kci.go.kr



<그림 46> AR-8 <광도급백도>

<그림 39> 1:50,000 South Korea 지도의 sheet 가운데 AA-3은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sheet인 <울릉도>이다. <울릉도> sheet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독도>만 별도로 그린 sheet는 없다. 앞에 기술한 East Asia 1:500,000지도의 <그림 19> <울릉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림 40> <울릉도>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10배 더 자세하게 그린 울릉도 지도에 독도가 없는 것은 한 지면에 독도까지 그리기에 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이라면, 별도의 sheet에 독도를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를 그린 별도의 sheet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5>는 위의 <그림 39>를 확대한 1:50,000 South Korea index sheet 확대도이다. 한반도 남해안의 작은 도서까지 sheet를 만든 매우 자세한 지도이다. 특히 이 가운데 AR-8 sheet에 그려진 섬은 매우 작다. <그림 46>은 AR-8을 확대한 <광도급백도(廣島及白島)>이다. 10여 개의 작은 섬들을 그린 지도인데, 여백에는 축척을 달리하여 작은 섬을 확대하여 그려 넣었다. 전체 지도의 구성을 참고해보면, 1:50,000 South Korea 지도는 한반도의 도서지역까지 포함시켜 그린 매우 자세한 지도이다. 또한 작은 섬의 경우, 축척을 달리하여 확대한 후 지도의 여백에 추가하여 그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도 제작의 방식을 따른다면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울릉도지도 여백에 추가하여 그리기에 충분했거나 별도의 독립된 sheet로 제작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50,000 South Korea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독도를 중요한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독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식민지 조선의 작은 섬 독도는 태평양전쟁 준비에서 전략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섬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www.kci.go.kr

5. 맺음말

일본은 비밀 정찰 활동을 통해 187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의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를 Gaihōzu 지도(일본 제국기 외방도)라고 부른다.

스탠퍼드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Gaihōzu 지도는 82세트 8,000여 점에 이른다. Gaihōzu 지도의 수가 방대한 이유는 한 세트의 지도가 백 여 개의 지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하여 그린 지도는 11세트이고 6점의 지도가 울릉도 및 독도 지도이다. 스탠퍼드 대학은 미국의 AMS(Army Map Service)로부터 Gaihōzu 지도를 기증받아 지금까지 소장해 오고 있다. 미군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으로부터 Gaihōzu 지도를 압수하였고 AMS는 이 지도를 다시 인쇄하여 미국과 캐나다 대학 및 공공 도서관 150여 곳에 기증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California주는 Gaihōzu 지도 소장처가 5군데나 되는 최대 소장처 지역이다.

스탠퍼드 대학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가 소장하고 있는 울릉도 및 독도 지도는 1903년, 1927년, 1938년, 1944년 등으로 일본의 정찰 활동 이후 초기에 제작된 지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1903년 제작된 지도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 및 주권을 박탈해가기 전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지도의 인쇄 정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47년 5월 도쿄 프린팅'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미군이 지도를 압수하여 도쿄에서 다시 인쇄한 지도이다. 그리고 이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지도는 미군이 압수한 원본지도이며 원본 지도에만 '부외비(部外秘)'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모든 지도의 하단에는 AMS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지도의 번호를 표시하였다. 이밖에 '극비' 또는 '군사극비'라는 표기도 있다. 모두 군사적으로 비밀지도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마다 단어를 통일시키지는 않았으며 '극비'라는 표기는 인쇄된 단어가 아닌 스탬프로 찍은 글자이다. 이와 같은 표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원본 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인쇄한 지도로 보여진다.

Gaihōzu 지도는 정치적 인식이 담긴 지도가 아니다. 첩보활동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형도이다.[23] 당시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게 독도는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영역으로서도 중요하지 않은 섬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정보가 풍부했거나 전략적인 목적으로 지형도를 그렸다면 독도가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자세하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Gaihōzu 지도에서도 독도의 실체는 달라진 적이 없다. 늘 경상북도 울릉도 옆의 작은 섬으로 존재해

23) Kobayashi는 2012년 논문을 통해 Gaihōzu 지도를 'Japanese overseas maps'이라고 명명하였고, 탐사와 과학적 측량을 통해 만든 지형도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필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www.kci.go.kr

왔거나 그리기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익과 태도의 변화로 독도의 소속과 행방, 즉 현상만이 달라졌을 뿐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과정과 이 시기에 인쇄된 <대동아항공도>에 나타나는 독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Gaihōzu 지도의 존재 파악 정도에 연구가 머물러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연구는 초기 단계의 수준이다.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Gaihōzu 지도 전체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은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스탠퍼드 대학 Gaihōzu 지도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 다른 대학과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Gaihōzu 지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울릉도 및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 지도를 조사하고 그 이미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1870년대부터 일본이 만들기 시작한 동아시아의 거대하고 자세한 지형도에는 무수히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 당시 지도를 만든 일본의 의도와 인식, 이 지도를 압수해 간 미국의 의도, 그 지도가 당시 실재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등 연구의 가치가 크다. 더 나아가 당시와 현재의 경관을 비교하여 경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미지 사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남영우 외.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진중일지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대한지리학회지』제47권 제3호(2012). 407-425.

남영우 외. “조선말 일제 참모본부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대한지리학회지』제44권 제6호(2009). 761-778.

남영우. “일본 참모본부 간첩보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 근대지도의 제작과정.”『문화역사지리』제4호(1992). 77-96.

양보경 외. “19세기 후반 일본 참모본부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지도: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 Vault본 지도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제21권 제3호(2009). 32-46.

최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문제 - 조약 전후 국제정치적 변화와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12.

홍순호. “征韓論 - 근대 일본의 침략사상과 조선정벌정책.”『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14집(1996). 31-65.

Anderson, John M. “Forgotten Battles, Forgotten Maps: Resources for Reconstructing Historical Topographical Intelligence Using Army Map Service Materials.” *Historical Geography* 29(2001). 79-91.

Ehrenberg, Ralph E. “Administration of Cartographic Materials in the Library of Congress and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Archivaria* 13(1981). 23-39.

Harris, Chauncy D. “Geographers in the U.S. Government in Washington, D.C., during World

www.kci.go.kr

War II." *Professional Geographers* 49(1997). 245-256.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A Symposium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Gaihōzu≫, October 8, 2011, Stanford University, Symposium (2011).

Kären Wigen, "Introduction to "Japanese Imperial Maps as Sources for East Asian History: The Past and Future of the Gaihōzu"." *Cross-Currents E-Journal* (No. 2) (March 2012)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

Kobayashi, Shigeru. "Japanese Mapping of Asia-Pacific Areas, 1873-1945: An Overview."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E-Journal* No. 2 (March 2012) (http://cross-currents.berkeley.edu/e-journal/issue-2)

https://stanford.maps.arcgis.com/apps/PublicGallery/index.html?appid=1ed3022fc7884690a2f137bce9dfe4fe(스탠퍼드대학 Japanese Imperial Maps)

http://ull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ulleung&dataType=01&contents_id=GC01500502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사전)

www.kci.go.kr

www.kci.go.kr